

##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의 지지 및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권 재 환<sup>1)</sup>

박 희 현<sup>2)</sup>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의 지지 및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 간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년제 대학의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행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 매개변인으로서 교수의 지지 및 학습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수록 교수의 지지에 대한 지각과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의 지지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수록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예언변인으로,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를 매개변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교수-학생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학습동기의 향상,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의 지지 및 학습동기 간의 위계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과 대학에서 교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의 지지, 학습동기, 대학생활적응, 구조모형

---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함.

1)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2)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E-mail : gpark25@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인하여 학습자의 학령기가 길어짐에 따라 청소년이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Shanahan, 2000) 추세에 기인하여 최근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을 다룬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학교환경 내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고 학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학생 개인과 학교환경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 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이정은, 조미형, 2007), 학교에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해 갖는 정서와 태도 및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이 포함된다(Birch & Ladd, 1997).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생활에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측면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잘 대처해 나가는지의 의미를 지닌다(Baker & Siryk, 1984).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선행연구들은 개인 내적인 특성과 사회·환경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또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먼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개인 내적인 특성을 다룬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학습동기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동기적 요소들을 다룬 연구들(이숙정, 2011; 장경문, 2005; 정여주, 홍성례, 2012; 정은이, 박용한, 2008; 홍계옥, 강혜원, 2010; 홍성례, 2011), 자기조절 학습능력이나 학습몰입 등과 같은 학습기술적

요소들을 다룬 연구들(류정희, 조발그니, 2012; 이숙정, 2011; 최경호, 2010) 등이 가장 많다. 사회·환경적인 특성을 다룬 연구들은, 부모 애착(홍계옥, 강혜원, 2010), 부모양육태도(권재환, 이성주, 2013), 가족의 지지(류정희, 조발그니, 2012) 등과 같은 가족관련 요인들을 다룬 연구들, 교수신뢰(정은이, 박용한, 2008), 교수 멘토링(이인경, 김장희, 2011)과 같은 교수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 그리고 학교특성(이영민, 임정연, 2011)과 대학생활적응을 다룬 연구들로 구분된다. 이 연구들은 부모나 교수와 같은 대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그들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밝혀짐으로써,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학습과 관련된 개인 내적인 요인들과 학교생활적응을 살핀 연구들에 편중되어 있고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환경적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며, 특히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심리적·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관련지어 살펴본 일부 연구들(곽수란, 2006; 문은식, 2001; 장신재, 양혜원, 2007; 조은정, 2012)을 통해서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후기청소년

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요인이나 학교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나 부모양육에 관한 연구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다(Gitelson & McDermott, 2006). 이는 발달단계상 대학생 시기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하정희, 정은선, 송수민, 2010)으로 이해되지만,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단계인 이 시기의 특성상 성인 자녀가 원가족에 심리적·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곽윤영, 정문자, 2010)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가 성인이 된 대학생 시기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권재환, 이성주, 2013)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Gitelson & McDermott, 2006), 대학생에게도 부모의 양육행동은 적응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교환경적 요인과 학습자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다. 먼저,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학교환경적 요인을 다룬 연구들(이인경, 김장희, 2011; 정은이, 박용한, 2008)은 주로 교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들은 교수 멘토링 교육과정은 대학생활적응에 효과가 있으며, 교수에 대해 친밀감을 높게 평가할수록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그

러므로 대학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인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교수의 지지에 대한 지각과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을 파악한다면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적응 및 학교교육의 객관적 지표인 학업성취도의 향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환경 특히 대학교수와의 관계지각에 어떤 영향을 보일 것인가? 임성택, 김나연, 주동범(2010)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우관계보다는 교사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더 민감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습득한 태도와 행동은 교사와의 관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과 교수와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인 학습동기를 살펴보면, 학습동기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한순미, 2004)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습동기는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여러 연구들(김명희, 하정희, 2008; 김일태, 허남진, 2004; 정은이, 박용한, 2008; Schunk & Zimmerman, 2008)이 이를 뒷받침한다.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분하여 학습동기를 설명하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의하면, 인간은 세 가지

심리적 욕구들이 충족될수록 더 행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내재적 동기를 갖게 되며, 더욱 열심히, 더욱 신나게,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 즉, 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율성의 증진과 학습에 대한 자신감인 유능성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관계유지욕구인 관계성이 증진되면 학습동기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개인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가족이나 또래 중심의 제한된 관계에서 벗어나 확장된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이수진, 2009), 관계성은 인간의 개인 내적인 동기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는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Furrer & Skinner, 2003).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학교라는 두 가지 공간을 오가며 생활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학습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조한익, 황정은, 2012), 학교환경에서 교수의 지지(김경주, 김기홍, 박경선, 2012; 유지원, 강명희, 2012)나 교수와의 친밀감(정은이, 박용한, 2008)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학생이 생활하는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나 교수와의 관계가 학습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수의 지지와 대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습동기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Legault, Green-Demer 및 Pelletier(2006)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사회적 지지와 학습동기 부여의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동기요인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의 성선진(2010), 문승태와 김민배(2005) 등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지지와 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나 성취동기와 같은 동기적 요인들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살펴본 소연희(2008)의 연구에서도 학습동기 관련 요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 집단에서도 교수의 지지가 학습에 대한 동기적 요인이나 학업적응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의 지지, 학습동기,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에서 의미 있는 타인인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에서 교수와의 관계가 학습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의 기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 가정하고, 그것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각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의 기제를 이해하고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교수의 지지 및 학습동기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의 지지 및 학습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선행변인으로 하고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의 개념적 틀로써 대학생활적응 예측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부분매개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구조모형분석에서는 연구모형보다 얻어진 자료에 부합도가 더 높은 모형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고, 부합도의 차이가 없으면서도 더 간명한 모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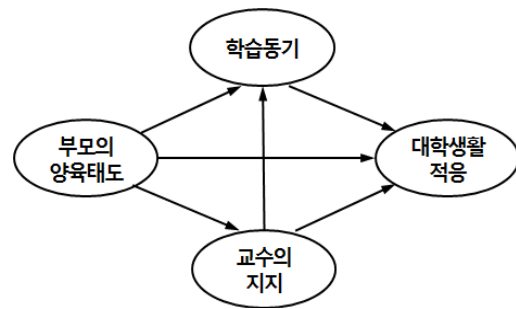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따라서 연구모형 이외의 경합모형을 설정하여 이들의 지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조선배, 1996).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가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교수의 지지나 학습동기의 매개작용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적응과 관련하여 부모양육태도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밝힌 선행연구들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Gibbs(199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일탈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다른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자기통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혜림(2009)의 연구, 그리고 부모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조은정(2012)의 연구 등이 있다. 이 근거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선행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 1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곽수란, 2006; 왕혜옥, 김광웅, 2004; 장신재, 양혜원, 2007; 조은정, 2012; 최효임, 김성일, 2004), 교수의 신뢰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며(정은이, 박용한, 2008),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김일태, 허남진, 2004; 정은이, 박용한, 2008)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의 지지 및 학습동기가 직접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모형을 경쟁모형 2로 설정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2개 대학과 J도에 소재한 2개 대학의 1~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 240명이다. 설문조사는 각 대학의 교양 심리학 과목의 수업시간에 과목 담당교수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수강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무성의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자료와 다변량 정규분포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응답치 24부를 제외한 216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106명(49.1%), 여학생이 110명

(50.9%)이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91명(42.1%), 2학년 52명(24.1%), 3학년 45명(20.9%), 4학년 28명(12.9%)이었다.

### 2. 측정도구

#### 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검사’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문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5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40문항 중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2문항을 제외한 3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10문항(예: 부모님은 나와 자주 다정하게 이야기 하신다), 자율-통제 8문항(예: 부모님은 어려운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해결하기를 바라신다), 성취-비성취 10문항(예: 부모님은 내가 할 일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시는 편이다), 합리-비합리 10문항(예: 부모님은 가족이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나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신다)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애정-적대 .79, 자율-통제 .65, 성취-비성취 .66, 합리-비합리 .78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 교수의 지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수의 지지 척도는 Nolten(1994)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교사의 지지를 측정하는 9문항을 대학생에게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한 후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내용을 최종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지지 3문항(예: 교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신다), 정보적 지지 2문항(예: 교수님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신다), 도구적 지지 2문항(예: 교수님은 나의 목표와 관심 분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신다), 평가적 지지 2문항(예: 교수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나 잘했을 때 칭찬해주신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이며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정서적 지지 .73, 정보적 지지 .82, 도구적 지지 .79, 평가적 지지 .80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 학습동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동기 척도는 김아영(2002)이 개발한 학습동기검사 4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26문항(예: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학업적 실패내성 18문항(예: 나쁜 점수를 받으면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결심하곤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89, 학업적 실패내성 .81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김택호와 김재환(2004)이 만든 학교생활적응 척도 50문항을 성선진(2010)이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한 4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학업적응 18문항(예: 나는 시험 때가 아닌 평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나는 수업 중에 나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표한다), 사회적응 17문항(예: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많다; 나는 학교의 규칙이나 질서를 잘 지킨다), 환경적응 9문항(예: 우리학교의 환경은 나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학업적응 .90, 사회적응 .85, 환경적응 .89였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 3.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

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쟁모형과  $\chi^2$  차이검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하여  $\chi^2$  검증과 적합도 지수들 중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또한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일반적으로 측정된 변인들의 왜도(skewness)가  $\pm 1.965$ 를 벗어나는 경우 정규분포의 가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pm 1.965$  이하로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다. 모든 측정변인들의 평균점수가 5점 척도 하에서 3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립점수인 '보통이다'보다 약간 더 긍정적인

표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 변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1. 애정-적대  | 1     |       |       |       |       |       |       |       |       |       |       |       |      |
| 2. 자율-통제  | .55** | 1     |       |       |       |       |       |       |       |       |       |       |      |
| 3. 성취-비성취 | .71** | .59** | 1     |       |       |       |       |       |       |       |       |       |      |
| 4. 합리-비합리 | .70** | .62** | .64** | 1     |       |       |       |       |       |       |       |       |      |
| 5. 정서적 지지 | .24** | .21** | .29** | .25** | 1     |       |       |       |       |       |       |       |      |
| 6. 정보적 지지 | .18** | .17*  | .21** | .16*  | .76** | 1     |       |       |       |       |       |       |      |
| 7. 도구적 지지 | .15*  | .09   | .17*  | .12   | .72** | .73** | 1     |       |       |       |       |       |      |
| 8. 평가적 지지 | .17*  | .12   | .20** | .17*  | .65** | .64** | .71** | 1     |       |       |       |       |      |
| 9. 자기효능감  | .22** | .31** | .29** | .23** | .25** | .26** | .20** | .23** | 1     |       |       |       |      |
| 10. 실패내성  | .19** | .21** | .23** | .21** | .33** | .32** | .30** | .25** | .73** | 1     |       |       |      |
| 11. 학업적응  | .22** | .35** | .27** | .23** | .29** | .25** | .23** | .26** | .65** | .45** | 1     |       |      |
| 12. 사회적응  | .36** | .39** | .35** | .34** | .59** | .56** | .49** | .48** | .42** | .35** | .48** | 1     |      |
| 13. 환경적응  | .22** | .29** | .19** | .22** | .31** | .29** | .18** | .25** | .36** | .28** | .40** | .53** | 1    |
| M         | 3.70  | 3.54  | 3.51  | 3.38  | 3.05  | 3.36  | 3.05  | 3.17  | 3.27  | 3.00  | 3.10  | 3.52  | 3.33 |
| SD        | .58   | .55   | .50   | .59   | .77   | .76   | .90   | .89   | .48   | .49   | .58   | .49   | .72  |
| 왜도        | -.56  | -.29  | -.14  | -.58  | -.08  | -.32  | .11   | -.25  | .24   | .01   | .14   | -.06  | -.02 |
| 첨도        | .15   | -.01  | -.26  | .36   | .15   | .37   | -.35  | -.02  | .93   | .39   | 1.15  | .42   | .06  |

\*  $p < .05$ . \*\*  $p < .01$ .

방향을 보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들은 교수의 지지,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과 대부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교수의 지지에 대한 지각과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사회적응( $r = .39$ )과 학업적응( $r = .35$ )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사회적응( $r = .36$ )과, 부모의 성취적 양육태도는 사회적응( $r = .35$ )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수의 지지 하위요인들도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교수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사회적응( $r = .59$ ,  $r = .56$ )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학습동기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은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학업적응( $r = .65$ ,  $r = .45$ )과 관련성이 높았다.

각 잠재변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잠재변인에서 관측변인으로 가는 모든 경로의 요인부하량이 .5 이상의 값을 보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문항의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우종필, 2012).

## 2. 구조모형의 검증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수의 지지, 학습동기, 대학생활적응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 2. 잠재변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 측정변인   | 잠재변인     | B    | $\beta$ | S.E. | C.R.     |
|--------|----------|------|---------|------|----------|
| 애정-적대  | 부모의 양육태도 | 1.00 | .84     |      |          |
| 자율-통제  |          | .81  | .72     | .07  | 11.30*** |
| 성취-비성취 |          | .84  | .82     | .06  | 13.33*** |
| 합리-비합리 |          | 1.00 | .82     | .08  | 13.38*** |
| 정서적 지지 | 교수의 지지   | 1.00 | .87     |      |          |
| 정보적 지지 |          | .97  | .86     | .06  | 16.12*** |
| 도구적 지지 |          | 1.13 | .85     | .07  | 15.73*** |
| 평가적 지지 |          | 1.02 | .77     | .08  | 13.57*** |
| 자기효능감  | 학습동기     | 1.00 | .98     |      |          |
| 실패내성   |          | .75  | .74     | .08  | 9.27***  |
| 학업적응   | 대학생활적응   | 1.00 | .67     |      |          |
| 사회적응   |          | .99  | .79     | .11  | 9.51***  |
| 환경적응   |          | 1.06 | .58     | .14  | 7.34***  |

\*\*\*  $p < .001$ .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 구조모형           | $\chi^2$   | df | TLI  | CFI  | RMSEA |
|----------------|------------|----|------|------|-------|
| 연구모형 (부분매개모형)  | 141.132*** | 59 | .929 | .947 | .080  |
| 경쟁모형1(완전매개모형)  | 154.965*** | 60 | .920 | .938 | .086  |
| 경쟁모형2(직접모형)    | 182.793*** | 62 | .901 | .921 | .095  |
| 비교1(연구 vs 경쟁1) | 13.833***  | 1  |      |      |       |
| 비교2(연구 vs 경쟁2) | 41.661***  | 3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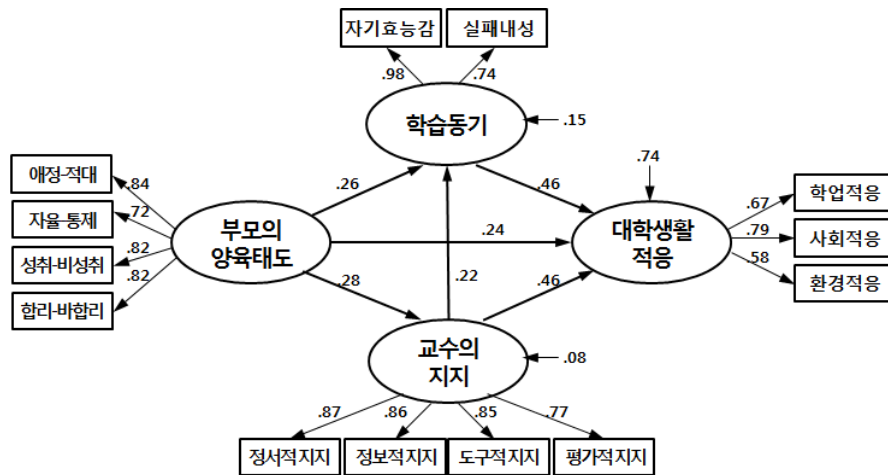
\*\*\*  $p < .001$ .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여 설정한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예언변인으로,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를 매개변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2개의 경쟁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chi^2$ 값은 141.142, 경쟁모형 1(완전매개모형)의  $\chi^2$ 값은 154.965, 경쟁모형 2(직접모형)의  $\chi^2$ 값은 182.793이었으며 각각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chi^2$ 값은 표본의 크기에 심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Bentler & Bonett, 1980)  $\chi^2$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인  $\chi^2/df$ 가 5보다 작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가정하였고(Kelloway, 1998),  $\chi^2$ 값을 검정통계량으로 간주하지 않고 모형의 양호도의 척도로서만 간주하였다.

비교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의 값과 모수 불일치성 지수인 RMSEA의 값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경쟁모형들보

다 모든 지수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연구모형이 더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쟁모형들과  $\chi^2$  차이검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chi^2$  차이가 자유도 1일 때 임계값인 3.84보다 크면 부분매개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고 3.84보다 작으면 더 간단한 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채택한다(김계수, 2002). 두 모형간의  $\chi^2$  값의 차이가 13.833으로 임계값인 3.84보다 커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간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 모형에 제시한 6개의 경로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인에서 내생변인으로 가는 3개의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내생변인들 간의 경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대학생들의 교수의 지지에 대한 지각, 학습동기, 그리

고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의 지지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도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각 경로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습동기에 직접적인 영향( $\beta = .27, p < .001$ )을 미침과 동시에 교수의 지지를 거쳐서 간접적으로도 영향( $\beta = .06, p < .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 $\beta = .24, p < .001$ )을 미침과 동시에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를 거쳐서 간접적으로도 영향( $\beta = .03, p < .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 $\beta = .46, p < .001$ )을 미침과 동시에 학습동기를 거쳐서 간접적으로도 영향( $\beta = .10, p < .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 경로                | B   | $\beta$ | S.E. | C.R.    |
|-------------------|-----|---------|------|---------|
| 교수의 지지 ← 부모의 양육태도 | .39 | .28     | .11  | 3.69*** |
| 학습동기 ← 부모의 양육태도   | .26 | .27     | .07  | 3.61*** |
| 학습동기 ← 교수의 지지     | .15 | .22     | .05  | 3.00**  |
| 대학생활적응 ← 부모의 양육태도 | .20 | .24     | .05  | 3.62*** |
| 대학생활적응 ← 교수의 지지   | .27 | .46     | .04  | 6.38*** |
| 대학생활적응 ← 학습동기     | .38 | .46     | .07  | 5.62*** |

\*\*  $p < .01$ . \*\*\*  $p < .001$ .

표 5. 연구모형의 인과적 효과 분해

| 경로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SMC |
|-------------------|--------|-------|--------|-----|
| 교수의 지지 ← 부모의 양육태도 | .28*** | -     | .28*** | .08 |
| 학습동기 ← 부모의 양육태도   | .27*** | .06*  | .33*** | .15 |
| 학습동기 ← 교수의 지지     | .22**  | -     | .22**  |     |
| 대학생활적응 ← 부모의 양육태도 | .24*** | .03** | .27*** | .74 |
| 대학생활적응 ← 교수의 지지   | .46*** | .10*  | .56*** |     |
| 대학생활적응 ← 학습동기     | .46*** | -     | .46*** |     |

주. Bootstrap = 500, 추정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종합해보면,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변인임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의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본 결과, 교수의 지지는 .08, 학습동기는 .15, 대학생활적응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교수의 지지를 설명하는 변량은 8%, 학습동기를 설명하는 변량은 15%,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을 설명하는 변량은 74%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지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교수의 지지에 대한 지각과 학습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를 통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교수의 지지를 통하여 다시 학습동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대학생활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교수·학생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학습동기의 향상, 그리고 대학생활적응

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의 지지 및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각 요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들은 교수의 지지,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과 대부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교수의 지지에 대한 지각과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교수의

지지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와 가장 높은 관계가 있었고, 자율적이고 성취적 양육태도는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가 높았으며,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습득한 태도와 행동은 교사와의 관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 임성택 등(2010)의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한익과 황정은(2012)의 연구,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곽수란(2006), 권재환과 이성주(2013)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교수의 지지, 학습동기,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시기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학습동기, 그리고 대학생활적응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수의 지지 하위요인들은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교수의 지지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의 정서적이고 정보적 지지는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실패내성과 높은 관계가 있었고,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의 지지가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경주 등(2012), 유지원과 강명희(2012)의 연구

와 일치하는 것이며 교수와의 친밀감이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은이와 박용한(2008)의 연구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교수의 지지는 대학생의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환경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습동기 하위요인들은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동기 하위요인들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업적응과 높은 관계가 있었고, 사회적응과 환경적응에도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여러 연구들(김명희, 하정희, 2008; 김일태, 허남진, 2004; 정은이, 박용한, 2008; Schunk & Zimmerman, 200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습동기는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예언변인으로, 교수의 지지와 학습동기를 매개변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 및 직접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경쟁모형 1인 완전매개모형과 경쟁모형 2인 직접모형보다 적합도가 모든 지수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가

장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수의 지지, 학습동기,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교수의 지지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를 통해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세 가지 욕구 중의 하나인 관계성의 욕구 즉,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관계유지 욕구인 관계성이 증진되면 학습동기가 향상되고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교수-학생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의 지지 및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의 기제를 보다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을 둔 자녀에 대한 부모교육과 함께 대학에서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달리 학령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인 대학생에게도 부모의 양육행동은 적응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자녀 간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의 지지 및 학습동기 간의 위계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대학에서도 교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에서도 지도교수제를 두고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초·중·고등학교의 담임교사와 달리 상호작용의 기회가 정기적이지 않고 관계 또한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교수의 지지는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에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교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정규 수업시간에는 학습자가 직접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개별 면담이나 소그룹 면담을 확대하고 교수와 학생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일부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특성이 확대 또는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수도권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생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적인 표본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차이에 대한 검증이나 성별, 학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대학생의 부모교육과 대학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보다 의미 있게 적용하기 위해

서는 초·중·고등학생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발달의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주로 대학생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수의 지지를 설정하고 심리적 변인으로서는 대학생활적응 관련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학습동기를 설정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대학생의 전공이 다양하고 대학의 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에 다니는 이유나 목적에 따라서도 대학생활적응의 양상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대학을 진학하는 동기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오늘날 청소년이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춰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학생활적응의 문제를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나 교수와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대학생에게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교수의 지지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관계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상담 및 학생 지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를 둔다.

## 참고문헌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곽윤영, 정문자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21-141.
- 권재환, 이성주 (2013).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4(2), 35-62.
- 김경주, 김기홍, 박경선 (2012). 도립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및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17(2), 1-25.
- 김계수 (2002).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명희, 하정희 (2008). 학습동기와 학습기술이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심으로. *아동교육*, 17(2), 33-48.
- 김아영 (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 김일태, 허남진 (2004). 비학업자아개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분석. *열린교육연구*, 12(1), 75-96.
- 김택호,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류정희, 조발그니 (2012). 학습기술과 대학생활

- 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적 유능성, 가족의 지지) 자기가치 수반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1-21.
- 문승태, 김민배 (2005).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 간의 구조방정식 분석. 농업자원과 인적자원개발, 37(2), 37-55.
- 문은식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선진 (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계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연희 (2008). 학교 급별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로모형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7(2), 49-64.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0-32.
- 왕혜옥, 김광웅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1(2), 77-88.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유지원, 강명희 (2012). 대학생의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환경과 학습자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309-337.
- 이수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229-248.
- 이숙정 (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 이영민, 임정연 (2011).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학교특성에 따른 대학생생활 적응 결정요인 분석. 평생교육·HRD연구, 7(4), 89-118.
- 이인경, 김장희 (2011).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수 멘토링 교육과정의 효과. 상담학연구, 12(2), 673-691.
- 이정은, 조미형 (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3), 79-102.
- 이혜림 (2009).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통제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택, 김나연, 주동범 (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의 관련성. 한국교육연구, 27(3), 23-42.
- 장경문 (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6(1), 185-196.
- 장신재, 양혜원 (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정여주, 홍성례 (201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삶의 질 관계 연구 - 학교생활만족도와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복지연구, 14(3), 239-257.
- 정은이, 박용한 (2008). 대학생들의 교수신뢰와 학습동기 및 대학생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20(2), 73-93.
- 조선배 (1996).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 영지

- 문화사.
- 조은정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1), 35-50.
- 조한익, 황정은 (201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간의 관계: 정서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4), 27-52.
- 최경호 (2010). 전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기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분석.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임, 김성일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한국청소년연구*, 15(2), 57-92.
- 하정희, 정은선, 송수민 (201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상담학연구*, 11(4), 1375-1392.
- 한순미 (2004).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1), 229-350.
- 홍계옥, 강혜원 (2010). 대학생의 부모애착, 학업적 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연구*, 13, 133-144.
- 홍성례 (2011).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71-87.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of-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irch, S., & Ladd, G. (1997). The teacher-children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61-79.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NY: Plenum.
- Furrer, C., & Skinner, E. (2003).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48-162.
- Gibbs, J. J. (1998). Parental management and self-control: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1), 40-70.
- Gitelson, I. B., & McDermott, D. (2006). Parents and their young adult children: Transitions to adulthood. *Child Welfare*, 85(5), 853-866.
- Kelloway, E. K. (1998). *Using LISREL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researcher's guide*. Thousand Oaks, CA: Sage.
- Legault, L., Green-Demer, I., & Pelletier, L. (2006). Why do high school students lack motivation in the classroom? Toward an

- understanding of academic motivation and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3), 567-582.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chunk, D. H., & Zimmerman, B. J. (2008).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Shanahan, M. 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s of Sociology*, 26, 667-692.
- 1 차원고접수 : 2014. 04. 13.  
수정원고접수 : 2014. 05. 16.  
최종게재결정 : 2014. 06. 03.

##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Professor's Support,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Kwon, Jae-Hwan

Park, Hui-Hyun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s, professor's support, learning motivation,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The authors also sought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professor's support, learning motiv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which was administered to 240 students from four-year colleges. Correlational analyses and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nalyses were conducted to test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re positive parents' rearing attitude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perception of the professor's support, learning motivation,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Second, the more positive perception of professor's support had a positive impact on learning motivation,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Third, a higher learning motiv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Fourth, the study of the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all paths, and the fit of the model was good. Thus, positive parents' rearing attitudes proved to have a very significantly affect on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improved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ould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Education programs for the parents of college students need to be developed and undertaken. Moreover, more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Keywords: parents' rearing attitudes, professor's support, learning motivation,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structural model*